

“가온”은 ‘세상의 중심’

“다솜”은 ‘사랑’의

순우리말입니다

# 가온 다솜

2018. VOL. 25



# 가을 다음

## CONTENTS

2018. VOL. 25



기관소개 및 보호자인터뷰

03

삶의 노래

11

실로암 소식

04

실로암 칼럼

12

직원 및 입소자 교육

05

자원봉사 단체 및 신입직원 소개

13

프로그램 스케치

06

홈페이지 안내

1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안내

10

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15

 실로암요양원

발행일 2018년 4월 1일(통권 25호) 법인대표 김선태  
발행인 박지훈 편집인 장혜승 발행처 실로암요양원 주소 (11424)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쇠장이길 656  
TEL 031. 876. 2900 FAX 031. 876. 2990 <http://www.silwelnh.or.kr>

## 기관소개

- 대표 박지훈 원장
- 설립일 2010년 7월 19일
- 법인명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 법인대표 김선태 목사
- 이용정원 30명
- 이용현원 30명
- 직원정원 29명
- 직원현원 29명



## 보호자 인터뷰

안녕하세요.

강영순 어르신의(69세 | 2016년 11월 1일 입소)  
조카 김진희입니다.

요양원의 첫 느낌은 솔직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요양원 방문 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간접적으로 느끼며, 가슴이 아픕니다. 밥을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친구를 만나던지, 계속 바삐 움직이는 우리와 달리 이모는 제한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행 시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되고, 옆 사람과 부딪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식사시간에는 국과 반찬을 알려주지 않으면 무슨 국인지, 반찬인지 짐작을 할 뿐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보이는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 이모는 온 신경을 집중하며 해냅니다. 때론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이모의 예민함이 이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기나긴 사회의 생활을 접고 실로암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시각 장애인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이곳!!  
모두들 서로 의지하며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입소자 강영순 어르신과  
조카 김진희



지금까지 혼자 사신 우리 이모는 단체생활이 조금 힘들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이 있었고 처음에는 트러블도 생기고 힘들어 하였지만 지금은 여기 있는 분과 잘 지내며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면서 지내는 모습에 위안이 됩니다.

제가 요양원에 이모가 있어서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가족분들이 다른 요양원에 계셔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실로암요양원이 제일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 같이 봉사하시는 분들도 여기 요양원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 나는 세금 낸 것 다 받고 있구나. 우리 이모가 여기서 드시고, 주무시고 생활하면서 내가 낸 세금 다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곳 실로암요양원을 올 때마다 선생님들을 뵈면 꼭 감사하다는 인사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다시 한 번 선생님들에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 💡 실로암 소식

### 설날행사



설 명절 행사로 전직원 세배 인사, 실로암 골든벨, 복 받아라 게임과 함께 즐거운 요리교실로 만두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실로암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명절 기분을 한껏 즐겼으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실로암 가족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길만 걷는 2018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대보름 척사대회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실로암 척사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인 윷놀이를 통해 입소자들의 화합을 다지고 일년간의 안과태평을 기원하기 위한 놀이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두 팀으로 편을 나누어 윷놀이를 진행하였으며 정정당당한 힘을 겨루는 화합의 마당으로 정월대보름에 모두가 모여 한 해의 안녕을 도모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직원 및 입소자 교육



### 위생교육

아워홈 식재마케팅 소속 이승윤 강사와 “노로바이러스와 봄철 패류독소”라는 주제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냉장고 관리 방법, GlitterBug Potion을 통한 손 오염도 측정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 치매예방교육

양주시 보건소에서 내방하여 입소자들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며 입소자들의 치매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 직원 인권교육

‘인권의 이해 및 법적 적용기준’이라는 주제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권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실질적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성격유형에 따른 자기관리와 입소자 대응 교육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격유형에 따른 자기관리와 입소자 대응 교육 및 성격유형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성격유형에 따른 타인에 대한 이해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프로그램 스케치

야외나들이 월 1회



올해 첫 야외 나들이로 조선의 역사와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경복궁과 국립민속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따사로운 햇살이 입소자들을 반겨주듯이 경복궁 주변을 산책하기에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곳곳에 봄꽃을 대표하는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 꽃봉오리가 피어올라 있어 입소자들이 꽃을 직접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며 봄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입소자들 모두 멋진 추억을 한 가득 담아았습니다.

건강산책 월 2회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회암사지 박물관으로 건강산책을 다녀왔습니다. 2018년도 처음 진행되는 건강산책으로 입소자들이 설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 관람과 주변 공원을 산책하였으며, 제법 봄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산책을 진행하여 입소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까지 챙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현장체험 피복 연 4회



봄을 맞이하여 홈플러스 의정부점을 방문하여 입소자들의 피복구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신의 개성에 맞추어 멋있고 예쁜 옷들을 구입하고 손마다 쇼핑백 하나씩을 들고 풍성한 마음으로 요양원으로 돌아와 서로 한껏 뽐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현장체험 외식 월 1회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송추가마골” 식당에서 외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뜨끈한 국물을 좋아하는 입소자들은 갈비탕, 면을 좋아하는 입소자들은 냉면을 주문하여 맛있게 식사하였습니다. 다가오는 봄기운에 즐거운 외식 시간이었습니다.

### 생일잔치 월 1회



생일을 맞으신 입소자들을 축하해드리는 생일잔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입소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즐겁게 불렀으며 또한 직원들이 직접 쓴 편지를 낭독하는 잔잔한 감동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 요리교실 월 1회



입소자들과 함께 요리교실 프로그램으로 롤 샌드위치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빵 위에 치즈와 햄을 올린 다음 그 위에 속을 채워 돌돌 말기를 하였는데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다고 모두들 좋아하셨습니다.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맛봄으로써 더욱더 맛이 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노스 양상불 공연** 월 1회



항상 잊지 않고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아이노스 양상불” 공연 팀이 요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양한 악기 연주와 찬송으로 입소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풍성하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jj church공연**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요양원을 찾а주시는 반가운 손님들인 JJ church 성 기복 목사님과 학생들이 방문하여 다양한 찬송공연과 말벗서비스로 입소자분들에게 즐거움과 따뜻함을 남겨주었습니다.

**건강체조** 월 4회



양주시 장애인체육회 전문강사의 진행으로 입소자분들의 유연성 및 근력유지와 강화를 위하여 요가체조와 밴드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조진행으로 입소자분들의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치료레크레이션** 월 2회



치료레크레이션은 두 팀으로 나누어 열띤 응원과 협동심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서로 경쟁하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으로 신체와 두뇌 활용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리치료** 주 5회



물리치료사가 입소자들의 개개인 통증 부위를 체크하고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전기치료, 운동치료, 마사지치료 등 의 물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력증상체크** 주 1회



매주 월요일은 1층 의무실에서 입소자들의 혈압, 몸무게, 혈당, 체온, 체지방 등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활력 증상체크를 통하여 질병 및 성인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으로 건강한 요양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업치료** 주 5회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정의 문제로 기능이 저하된 시각, 지적,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언어치료** 주 5회



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의사소통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장애특성에 따라 개별적 접근방향을 설정하여 구강마사지, 발성, 조음, 공명 및 기능적 의사소통 등의 훈련을 통해 손실된 기능을 회복시키고 잔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초록이 주는 즐거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안내

### 사업안내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업이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산림복지 소외자가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바우처카드 지원(지원 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자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

#### 제공자 유형

유형	시설기준	인력기준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에 적합할 것 숙박시설, 편의·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안전시설 등	숲해설가 2명 이상 또는 숲길체험지도사 1명 이상
산림욕장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적합할 것 편의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안전시설 등	숲해설가 1명 이상 또는 숲길체험지도사 1명 이상
치유의 숲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적합할 것 치유센터, 치유숲길 등 치유시설, 편의·위생시설, 전기·통신·안전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만㎡ 이상 :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1급 1명 이상 포함)</li> <li>· 50만㎡ 미만 :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 (1급 1명 이상 포함)</li> </ul>
유아숲 체험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1호 및 제2호에 적합할 것 야외체험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인원 25명 이하 : 유아숲지도사 1명</li> <li>· 유아인원 26~50명 이하 : 유아숲지도사 2명</li> <li>· 유아인원 51명 이상 : 유아숲지도사 3명</li> <li>· 이외 유아의 안전을 위한 보조교사 배치</li> </ul>
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부터 제3호에 적합할 것 자연림 또는 산림공원, 강의실, 실내실습실, 도서실 등 기본시설 및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근관리자 2명 이상</li> <li>· 산림교육담당 상근인력 1명 이상,</li> <li>· 그 밖의 전문강사 확보계획이 있어야 함</li> </ul>
산림복지센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을 포함하여 3종류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을 갖춘 곳(각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유형별 인력기준에 적합할 것

출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삶의 노래



입소자 이순희 어르신

76세 | 2015년 2월 입소

안녕하세요?  
이순희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에서 대대로 살아오던 사대부집 삼남매 중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금이야 옥이야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여름에는 어머님의 팔베개를 베고 누워 수건으로 모기를 쫓아가며 하늘의 별을 헤고, 반딧불 잡아 호박꽃에 담아 들고 ‘엄마, 할머니’ 부르며 재롱을 부리던 저는 7세 되던 겨울,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그 눈을 고쳐보겠다고 허송세월을 보내다 포기를 하 고 10살부터 시작한 공부가 역학(동양철학)이었습니다. 그렇게 문하생 8명이서 10년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뒷산에 가셔서 가시나무로 지팡이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서 부모의지 말고 혼자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는 바람에 속이 너무 상해서 그 지팡이를 아궁이에 넣어 버렸습니다.

그 길로 집을 떠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심선악(人  
心善惡)을 배우면서 경전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23세 때에 제자를 만나게 되어 방을 하나 얻어서 그때부터 역학(易學)간판을 걸게 되었는데 주인집이 교회 장로님이라 목사님이 심방을 오면 점쟁이에게 방을 주었느냐고 뭐라고 한다는 소리도 듣게 되었고, 그 장로님이 저를 얌전하게 봐 주셔서 방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28세 되던 해에 그동안 번 돈을 밀천 삼아

결혼을 하고, 31세 때 남매를 데리고 미아리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손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흔 두 살이 될 때까지 이사만 12번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의 불화로 말미암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보문사(석모도)를 찾아 합장제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맡겨진 남매를 부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어린 것들을 눕혀놓고 이런 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숱한 가운데 이를 악물고 정신을 차리고, 성실로 벽을 쌓고 겸손으로 지붕삼아 지혜로 문을 내면 사랑의 손님이 다가 올 것이라 자신감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손님은 줄을 섰습니다. ‘부처님 저를 10년만 도와주세요. 10년 이후엔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정말로 많은 손님들을 보내주셔서 남매들을 훌륭하게 뒷바라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10년 되던 해에 간판을 내고 그동안 번 돈으로 이웃들을 위해서 쓰기로 하고 그 돈으로 베풀면서 살다가 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초년을 바쁘게 지냈고, 중년은 힘들게 지냈고, 후년은 마냥 행복했고 말년은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들을 만난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욕심 없고 이곳을 천국으로 믿고 귀천(歸天)하는 그날까지 기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로암 칼럼

'저장강박증(compulsive hoarding syndrome, 貯藏强迫症)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저장강박장애, 저장강박증후군 또는 강박적 저장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심한 경우 치료가 필요한 행동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습관이나 절약 또는 취미로 수집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낡고 필요 없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집 안에 쌓아 두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저런 물건을 주워오는 행동을 호딩(hoarding),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을 호더(hoarder)라고 하는데 호더는 집에 가득 차 있는 물건을 통해 위안을 느끼기 때문에 가져온 물건을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행동을 어떤 물건에 담긴 행복한 추억이 물건을 버리는 것과 동시에 없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장롱에서부터 하다못해 이불까지 버리는 것으로 아내랑 의견을 모으고 집을 정리 하는데 그동안 버리지 않고 모아놓은 것이 나왔습니다. 이미 단종 된 뼈로부터 시작하여 영수증이란 영수증은 다 모아놓은 겁니다. 1985년에 결혼하여 여러 번 이사를 다니면서도 그걸 왜 챙겨 가지고 다녔을까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쓰레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게 있는데 바로 사람입니다. 그것이 악연(惡緣)이 되었든지, 인연(因緣)이 되었든지 사람은 쉽게 버리게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일찍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일 겁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무엇이든지 소유하려고 하는 성격으로 변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요양원 원년 멤버인 할머니가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로 병원에 계시다가 재활을 하지 못해 생활시설인 이곳으로 퇴원하지 못하고 아들내외가 살고 있는 인근 요양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유별난 성격 탓에 '싸움닭'이란 별명까지 얻고, 성질이 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아무에게나 육두문자를 쓰는 분인데, 그렇게 떠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편안하게 고생하지 않고 귀천(歸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이분들을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것이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불들고 있는 것들을 호딩(hoarding)하지 마시고, 평안한 노후가 되시기를 빌어봅니다.



실로암요양원 김무경 원목

## 자원봉사 단체

반야월 예술단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야월예술단 대표 박희라입니다.

저의 단체는 가요사의 선구자를 잊지 않고 그 분들이 남기신 불멸의 전통가요를 보급, 발전시키며 아름다운 마음을 담은 노래로 봉사하는 것을 긍지와 자부심으로 여기는 단체입니다. 2018년 새해부터 실로암요양원과 새로운 인연으로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반갑고 행복합니다.

요양원을 방문 했을 때 모든 분들이 열렬히 환영해 주시고 마음을 터놓고 목이 터지도록 노래를 합창 해 주실 때 기쁨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끈끈한 관계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예술단 여러분과 실로암의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기도 하겠습니다. 밝은 얼굴로 항상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8년 3월 예술단 대표 박희라

## 신입직원 소개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 실로암요양원의 가족이 된 김선호 생활재활교사입니다. 요양원 가족 여러분과 보내는 소중한 시간 항상 감사하게 여기며 하루하루 발전하는 모습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경력

2012.04 ~ 2014.04 송천한마음의집 생활재활교사 근무  
2016.03 ~ 2017.12 가없이 좋은 곳 사회재활교사 근무

### 자격현황

사회복지사 2급

## 실로암요양원 홈페이지

실로암요양원 홈페이지([www.silweinh.or.kr](http://www.silweinh.or.kr))에 방문하셔서 요양원에 대한 정보와 시설안내 및 프로그램 등을 편리하게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어딘가에는 달려갈 길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달려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둠뿐이기에 달려갈 수 없습니다.

고령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케어서비스와 섬김..

실로암요양원은 눈이 되고 빛이 되어주는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실로암요양원은 따뜻한 손을 잡아드릴  
사람들이 있습니다.**

## 1~3월 후원금 결산보고

세입		세출		(단위: 원)
비지정후원금	9,410,520	사무비	4,599,376	
지정후원금	250,000	재산조성비	1,188,000	
기타	2	사업비	326,860	
계	9,660,522	계	6,114,236	

## 자원봉사자와 후원자(1월~3월)

자원봉사자 (2018년 1월-3월)	후원자 (2018년 1월-3월)
<b>단체</b> 광적남원주어탕, 광진구지회, 서울시장애인시설협회, 소풍, 아워홈, 알파문구, 양주연화푸드마켓, 온누리식품(주), 우리은행광적지점, 코리아마트, 편한인더스트리(주), 해피빈	<b>단체</b> 광적남원주어탕, 광진구지회, 서울시장애인시설협회, 소풍, 아워홈, 알파문구, 양주연화푸드마켓, 온누리식품(주), 우리은행광적지점, 코리아마트, 편한인더스트리(주), 해피빈

후원 안내 ☎ 031-876-2900

후원하신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후원	치료, 교육 등의 재활서비스 지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 계좌번호: 793901-00-052667 (국민은행) 실로암요양원
결연후원	장애인과 1:1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으로, 후원금 전액은 결연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해 사용
물품후원	금전적 후원 외 생활용품, 의류, 가구, 운동기구 등
해피빈	<a href="http://happylog.naver.com/silwelnh.do">http://happylog.naver.com/silwelnh.do</a>

자원봉사 안내 ☎ 031-876-2900

중·고등학생, 대학생, 주부, 직장인이 개인이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노력봉사활동	생활실 청소, 안내보행, 밀벗서비스, 식당보조활동 등
외부활동	건강산책, 야외나들이, 현장체험 등
전문봉사활동	이미용봉사, 운전봉사, 사진봉사 등
치료봉사활동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웃음치료 등



2월의 늦은 어느 날 강가에 홀로 있을 때

찌정하는 소리에 눈을 들어 본다.

하늘이 진동하는지 마음이 진동하는지.....

언 강물이 소리 내어 봄을 맞이하려 하네.

온 세상 만물도 봄을 소리 내어 기다리는데

왜 우리네 인생은 그다지 봄이 기다려지지 않을까?

봄이 왔으되 눈에 그려지지 않는 이유일까?

피조물조차도 봄을 기다리는데.....

실로암요양원은 봄을 기다리지 않는다.

언제나 봄이기 때문에.....